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발생의 패턴 변화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가구, 가전제품의 내구재와 생필품의 소비는 증가한 반면, 대면 접촉 기피로 화장품, 의류, 가방의 소비는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확산 유행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변화의 영향으로 온라인 음식서비스 매출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2021년 12월의 온라인 음식서비스 매출액은 2018년 1월 대비 약 6배 증가하였다.
- 최근 10년간 택배 물동량은 전년 대비 평균 10.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2020년 택배 물동량은 전년 대비 20.9% 증가하였다.
- 생활폐기물 재활용 가능품목 중 폐합성수지류는 2020년 전년 대비 21.6% 증가하였으며, 그중 택배와 배달음식, 제품 포장 등에 사용되는 폐합성수지류 기타 품목이 59.9%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우리 국민들은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로 꼽았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쓰레기와 1회용품'으로 시선이 바뀌었다.
- 코로나19 팬데믹은 '쓰레기와 자원순환' 문제에 대한 관심과 행동변화에 밀접한 영향을 주었으며, '폐기물 관리정책'을 감염병 팬데믹 발생 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정책으로 꼽았다.

코로나19는 해외 유입 및 대구·경북, 수도권 유행기(2020.1.20~2020.8.11)를 시작으로 6차 유행(2022.7~)까지 일으키며 시기별 확산 패턴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소비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조정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모임 제한과 방역 패스의 시행으로 국민들은 비대면(언택트, Untact) 소비를 선호하게 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생필품부터 기호품까지 온라인 구매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매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간편식이나 배달 음식에 대한 이용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는 소비동향 지수와 소비재 유형별 매출액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1회용 포장재 등의 사용이 급증하였으며, 이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품 배출량과 중량재봉투 폐기물에 영향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배달 음식 등으로 인해 오염된 재활용품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들과 지자체에서는 골머리를 앓았다. 3년째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쓰레기와 포장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시기별 소비동향 지수의 추이와 배달 음식 등 온라인 음식서비스의 소비 변화, 택배 등 온라인 쇼핑의 변화, 그리고 생활폐기물 발생 변화를 분석하여 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패턴과 쓰레기 발생량의 변화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



는지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팬데믹 전후의 국민들의 쓰레기에 대한 문제의식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동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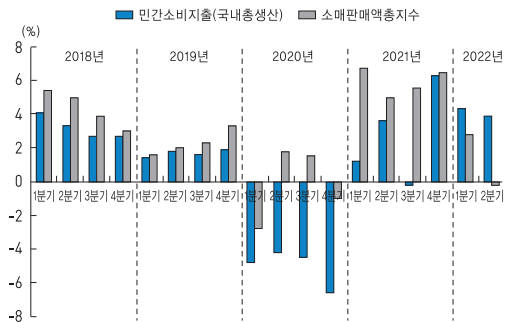
코로나19의 확산이 소비에 미친 영향은 시기별 코로나19 확산 패턴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팬데믹 전후의 민간소비지출(국내총생산)과 소매판매액의 전년 대비 증감률로 알 수 있다(그림 IX-8). 코로나19가 국내 유입된 2020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민간소비가 -4.8%로 감소하였으며, 4분기에는 -6.6%까지 감소하였다. 이러한 민간소비는 2021년 들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22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여 소비가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민간소비 중 재화에 해당되는 2020년 1분기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로 감소했으나, 점차 회복되어 약 성장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평균 5.9% 증가하여 회복되었다.

소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유통부문 가운데 온라인 부문 이용은 급증한 반면 오프라인 부문은 크게 감소하였다. 소비재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구재의 소매판매액은 2020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18.1%로 크게 증가하였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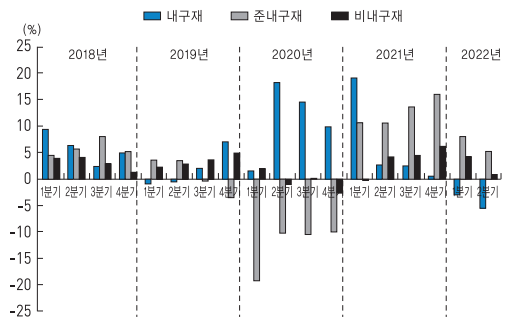
며, 2021년 1분기까지 10%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내구재 중에서 가장 내 생활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전제품, 가구에 대한 소매판매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개별적으로 이동하기 위한 승용차의 소매판매도 급증하였다. 한편 2020년에도 감소한 준내구재(의복, 신발 및 가방, 경기용품 등)는 2021년 회복세를 보이다가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5.9%로 더욱 증가하였다.

[그림 IX-8] 소비동향 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18.1/4-2022.2/4

1) 민간소비지출 및 소매판매액지수



2) 소비재 유형별 소매판매액지수



주: 1) 민간소비지출은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자료를 이용한 것임.
 2) 소매판매액지수(2015년=100)는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자료 이용한 것임.
 출처: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54).



배달음식 등 온라인 음식서비스 이용의 변화

비내구재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2020.11.1)가 구축된 2020년 4분기 등 일부 기간은 소폭 감소하였다. 비내구재 중에서는 음식료품과 의약품의 소매판매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에 화장품의 소매판매액은 크게 감소하였다.

2019~2022년 1분기까지 소비동향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민간소비 및 소매판매액은 2019년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가 강타한 영향으로 민간소비는 감소하고 대인 관계 및 여행·관광과 관련 있는 상품의 소매판매액도 감소하였다. 하지만 가정 내 머물면서 소비되는 생필품 위주의 소매판매액은 크게 증가하였다.

소매판매액의 변화와 유사한 동향을 나타내는 것이 신용카드 업종별 매출액 변화이다. 서울시의 오프라인 소비패턴 변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가구, 자동차서비스 등은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기타 음/식료품, 편의점 등도 소폭 증가하였다(최지혜 외, 2021). 이러한 소비변화는 가구와 가전제품, 자동차 및 관련 품목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1년 전국 개인 신용카드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3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카드사용액은 2019년 3월 대비 148.3% 수준까지 상승하여 택배 및 배달음식, 제품 포장재의 쓰레기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21).

국민들의 식생활의 변화로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음식서비스 매출액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왔고 2018년에는 전년 대비 92.6% 증가한 5조 2,628억 원이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배달 음식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음식서비스의 매출액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에는 연간 17조 3,342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25조 6,783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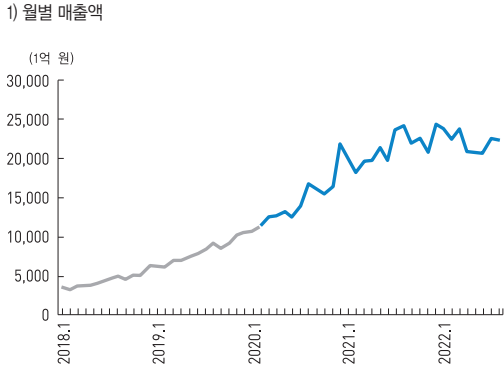
팬데믹 기간 중 온라인 음식서비스 매출액은 월별로 증감을 반복하기도 하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 유행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2020.6.28)가 마련된 이후에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차 유행기로 수도권에 대규모 확산(2020.8.12~2020.11.12) 사례가 발생한 2020년 8월과 9월에, 3차 유행기로 전국적 확산(2020.11.13~2021.7.6)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5단계(2020.11.1)로 강화된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는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적모임 인원 확대 및 식당·카페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2021.11.1)이 시작된 이후에는 배달음식 이용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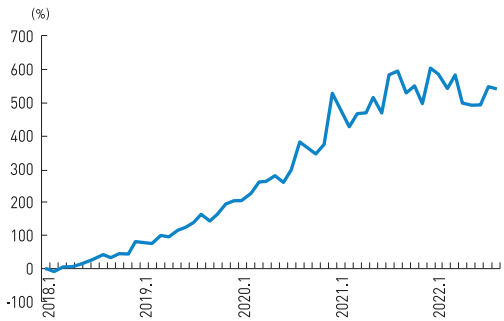
그러나 4차 유행기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2021.7.7~2022.1.29)이 급증하던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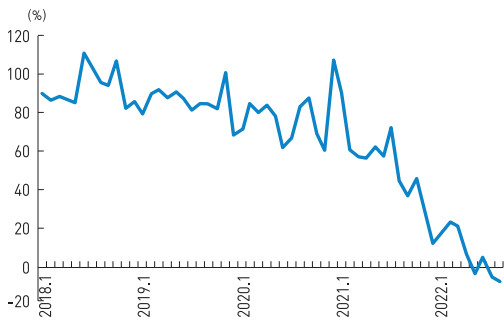
[그림 IX-9] 온라인 음식서비스 월별 매출액, 2018.1-2022.8



2) 2018년 1월 대비 증감률



3)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주: 1) 음식서비스 항목의 거래액 조사범위는 온라인 주문 후 조리되어 배달되는 음식(피자, 치킨 등 배달서비스)으로 한정함.

2) 2022년 7월과 8월은 잠정치(p)임.

출처: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각 연월.

12월의 온라인 음식서비스 매출액은 2조 4,49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그림 IX-9). 이는 2018년 1월 온라인 음식서비스의 매출액의 약 6배 증가한 금액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5차 유행기를 맞은 2022년 2월 이후 온라인 음식서비스 매출액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배달음식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에 따른 택배 물동량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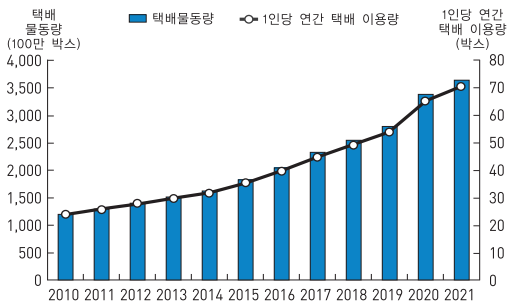
온라인 쇼핑의 급격한 성장 추세는 국내시장 택배 물동량의 추이로 알 수가 있는데, 국민 1인 당 연간 택배 이용량은 2000년 2.4박스에서 2020년 65.1박스로 증가하였다. 20년간 택배 이용량은 약 27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을 선호함을 시사한다.

[그림 IX-10]에서 최근 10년간 택배 물동량은 전년 대비 평균 10.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1년의 택배 물동량은 36억 2,976만 박스로 2011년(12억 9,906만 박스) 대비 179.4% 증가하였다. 특히 코로나19가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2020.1.20)된 이후 2020년 2월에는 택배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31.7%나 증가하였다. 또한 2020년 연간 택배 물동량은 전년 대비 20.9% 증가하여 최근 10년간 성장률의 2배에 달한다.



2021년 1인당 연간 택배 이용량은 70.3박스로 전 국민이 주당 1.4회 택배를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2011년 25.6박스에서 174.5% 증가한 물량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1인당 택배 이용량을 살펴 보면, 2021년 연간 128.2박스, 주당 2.5회 이용하는 셈이다.

[그림 IX-10] 국내 택배 물동량 및 1인당 연간 택배 이용량, 2010-2021



주: 1) 1인당 택배 이용량=연간 택배 물동량÷주민등록인구.
출처: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 물동량 추이」,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각 연도.

생활폐기물의 발생 변화

코로나19 확산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IX-9>에서 2020년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1일 4만 7,277톤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다.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

생량은 0.912kg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생활시간이 증가하면서 생활폐기물 배출량의 패턴이 크게 변화하였다. 종량제봉투 폐기물 배출량이 4.8%, 재활용가능자원이 6.3% 증가한 반면, 음식물류 폐기물은 2.9%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생활로 배달음식과 간편식 등을 선호하게 된 식품소비 변화의 요인으로 예상된다.

종량제봉투 폐기물 중에는 재활용품목으로 배출하지 않은 음식 포장용기류나 비닐류 등 '가연성 기타' 항목이 전년 대비 13.7%로 크게 증가하였다. 재활용가능 품목에서는 '폐전지류'가 전년 대비 238.2%나 증가하였으며, 그 외 '폐의류'(58.8%)와 '폐섬유류'(17.3%)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폐지류에서는 택배 포장재 등 '폐지류 기타'가 21.1% 증가하였으며, 식품 포장 등에 사용되는 '발포수지류'가 27.2% 증가하였다. 택배나 배달음식, 식품, 제품 등 다양한 포장재로 사용되는 '폐합성 수지류 기타'는 전년 대비 59.9%나 증가하였다.

정부는 2021년 9월부터 재택치로자가 배출한 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로 전환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제는 확진자가 배출한 폐기물과 일반 생활폐기물이 함께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팬데믹 대유행이 종식되기 전까지는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과 증감률에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IX-9〉 생활폐기물 종류별 1일 배출량, 2019-2020

| 폐기물 종류 | 배출량(톤/일) | | 2019년 대비 2020년 증감률(%) |
|---------------|----------|--------|-----------------------------|
| | 2019년 | 2020년 | |
| 생활폐기물 합계 | 45,912 | 47,277 | 3.0 |
| 중량제 소계 | 20,971 | 21,973 | 4.8 |
| 기연성 소계 | 18,032 | 18,932 | 5.0 |
| 폐지류 | 4,870 | 4,999 | 2.6 |
| 폐합성수지류 | 4,417 | 4,663 | 5.6 |
| 폐고무류 | 512 | 396 | -22.6 |
| 폐섬유류 | 881 | 1,013 | 15.0 |
| 음식물류 폐기물(중량제) | 1,409 | 1,317 | -6.5 |
| 폐목재류 | 1,186 | 1,134 | -4.3 |
| 기연성 기타 | 4,758 | 5,410 | 13.7 |
| 불연성 소계 | 2,405 | 2,329 | -3.2 |
| 폐금속류 | 435 | 439 | 0.9 |
| 폐유리류 | 612 | 620 | 1.2 |
| 폐토사류 | 196 | 180 | -8.3 |
| 폐타일 및 도자기류 | 142 | 137 | -3.6 |
| 연탄재 | 144 | 122 | -15.1 |
| 불연성 기타 | 876 | 832 | -5.0 |
| 건설폐재류 | 250 | 499 | 99.5 |
| 중량제 기타(배출불명등) | 284 | 212 | -25.1 |
| 재활용가능자원 소계 | 11,802 | 12,544 | 6.3 |
| 폐지류 소계 | 3,489 | 3,805 | 9.1 |
| 종이팩 | 474 | 153 | -67.7 |
| 폐지류 기타 | 3,016 | 3,652 | 21.1 |
| 고철류 | 1,015 | 726 | -28.4 |
| 금속캔 | 396 | 364 | -7.9 |
| 폐합성수지류 소계 | 2,604 | 3,166 | 21.6 |
| 비닐류 | 1,211 | 1,219 | 0.7 |
| 발포수지류 | 161 | 204 | 27.2 |
| PET병 | 517 | 599 | 15.8 |
| 폐합성수지류 기타 | 716 | 1,144 | 59.9 |
| 폐고무류 | 36 | 26 | -28.2 |
| 폐유리병류 | 772 | 797 | 3.1 |
| 폐의류 | 142 | 225 | 58.8 |
| 폐섬유류 | 63 | 74 | 17.3 |
| 폐형광등 | 47 | 20 | -56.8 |
| 폐전자류 | 34 | 116 | 238.2 |
| 영농폐기물 소계 | 486 | 464 | -4.4 |
| 농약용기류 | 62 | 8 | -86.4 |
| 영농폐비닐 | 424 | 456 | 7.6 |
| 폐식용유 | 44 | 8 | -81.8 |
| 폐전기전자제품 | 227 | 204 | -9.8 |
| 폐가구류 | 440 | 419 | -4.8 |
| 재활용 기타 | 304 | 366 | 20.5 |
| 재활용 잔재물 | 1,704 | 1,762 | 3.4 |
|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 13,139 | 12,761 | -2.9 |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쓰레기 문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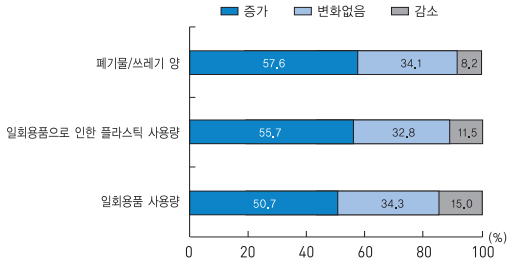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패턴과 생활폐기물의 발생 변화는 국민들의 환경의식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환경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에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로 ‘쓰레기 증가로 인한 문제’를 꼽았다. 특히 12가지 항목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 조사에서 2018년과 2019년에는 3순위였던 쓰레기 문제가 2020년과 2021년에는 1순위로 우뚝 올라선 것이다(한국환경연구원, 2021a).

국민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쓰레기 양 증가에 대한 스트레스와 행동변화가 있었을까? 한국환경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 「팬데믹 관련 환경인자 및 현황 분석 기반 환경 정책방향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일반 성인 남녀(20~69세) 1,02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쓰레기·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그림 IX-11).

이러한 가정내의 쓰레기 증가가 국가적 환경 문제에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49.3%가 쓰레기/폐기물/자원순환 문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IX-12). 이는 12가지 환경문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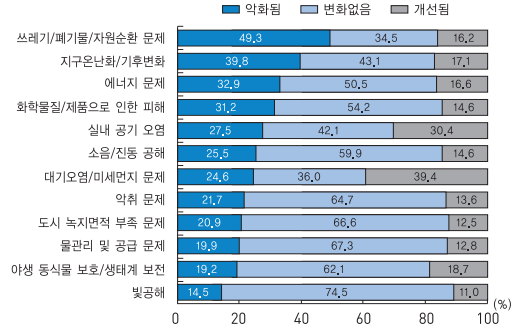


[그림 IX-11]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등 사용 변화수준,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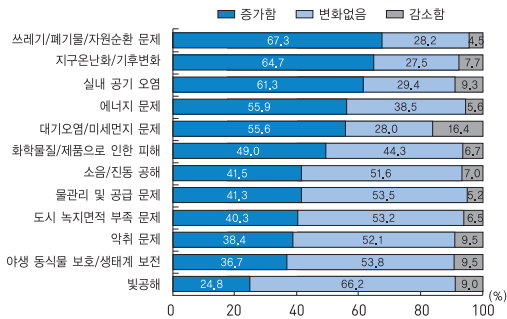
주: 1) 전국 성인남녀(20~69세) 1,020명을 조사한 결과임.
 2) 설문문항은 코로나 이후 '폐기물/쓰레기양', '일회용품(배달 및 테이크아웃 용품 포함)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사용량', '회용품 사용' 등 각각에 대해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많이 감소하였다'부터 '많이 증가하였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증가'는 '매우 증가하였다'와 '약간 증가하였다'를 합한 응답률이고, '감소'는 '약간 감소하였다'와 '많이 감소하였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한국환경연구원, 「팬데믹 관련 환경인자 및 현황 분석 기반 환경 정책방향 연구」, 2021.

[그림 IX-12]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환경문제 변화수준,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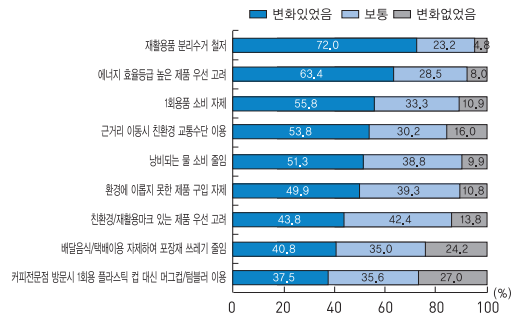
주: 1) 전국 성인남녀(20~69세) 1,020명을 조사한 결과임.
 2) 설문문항은 "귀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문제가 어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악화됨'부터 '매우 개선됨'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악화됨'은 '악화됨'과 '매우 악화됨'을 합한 응답률이고, '개선됨'은 '개선됨'과 '매우 개선됨'을 합한 응답률임.
 출처: 한국환경연구원, 「팬데믹 관련 환경인자 및 현황 분석 기반 환경 정책방향 연구」, 2021.

[그림 IX-13]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환경문제 관심도 변화수준,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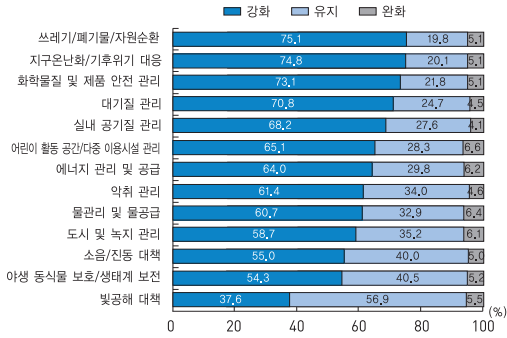
주: 1) 전국 성인남녀(20~69세) 1,020명을 조사한 결과임.
 2) 설문문항은 "귀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에 변화가 얼마나 있었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감소함'부터 '매우 증가함'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증가함'은 '매우 증가함'과 '증가함'을 합한 응답률이고, '감소함'은 '감소함'과 '매우 감소함'을 합한 응답률임.
 출처: 한국환경연구원, 「팬데믹 관련 환경인자 및 현황 분석 기반 환경 정책방향 연구」, 2021.

[그림 IX-14]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친환경 행동 변화수준, 2021



주: 1) 전국 성인남녀(20~69세) 1,020명을 조사한 결과임.
 2) 설문문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행동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변화 있었음'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한 응답률이고, '변화 없었음'은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한국환경연구원, 「팬데믹 관련 환경인자 및 현황 분석 기반 환경 정책방향 연구」, 2021.

[그림 IX-15] 감염병 팬데믹 발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환경정책, 2021



주: 1) 전국 성인남녀(20~69세) 1,020명을 조사한 결과임.
 2) 설문문항은 "귀하께서는 감염병 팬데믹 발생 시 다음과 같은 환경 분야 및 정책을 얼마나 강화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완화'부터 '매우 강화'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강화'는 '매우 강화'와 '강화'를 합한 응답률이고, '완화'는 '완화'와 '매우 완화'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한국환경연구원, 「팬데믹 관련 환경인자 및 현황 분석 기반 환경 정책방향 연구」, 202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쓰레기양 증가와 쓰레기 관련 환경문제 변화로 국민들의 관심도는 증가하였다. 실제로 응답자의 67.3%가 쓰레기/폐기물/자원순환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IX-13). 이는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문제'보다도 높은 관심도이다.

팬데믹 이후 국민들은 재활용품을 잘 구분해서 배출하는 노력('행동 변화 있었음' 72.0%)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1회용품 소비 자제('행동 변화 있었음' 55.8%)에도 노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IX-14). 다만 비대면 소비패턴 변화로 증가된 배달음식 및 택배 이용 자제('행동 변화 있었음' 40.8%)와 코로나19로 인한 위생 문제로 머그컵과 텀블러 이용('행동 변화 있

었음' 37.5%)은 실천에 있어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듯 코로나19 팬데믹은 쓰레기와 자원순환 정책에 밀접한 영향이 있으며, 국민들은 방역과 위생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도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감염병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으로 '쓰레기/폐기물/자원순환'(75.1%)을 꼽았으며, 이는 '실내 공기질 관리'보다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그림 IX-15).

맺음말

2020년 민간소비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음식과 택배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이 비대면 소비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발생 후 봉쇄(Lockdown)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공식품과 배달 음식의 구매가 증가하였으며, 포장재 등 쓰레기양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쓰레기/폐기물/자원순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그 비율은 67.3%로 12가지의 환경문제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재난상황에 가까운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경험을 통해 폐기물 관리에 대한 환경의식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환경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쓰레



기 문제와 1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범사회적 참여 촉진은 팬데믹의 영향을 받아 오히려 정책추진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한국환경연구원, 2021b).

코로나19 위기는 최근 세계가 경험한 그 어떤 경제 위기와도 다르지만 이러한 위기를 핑계로 포장재를 포함한 1회용품 사용과 생활폐기물 관리가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최지혜 외. 2021. “코로나19가 가져온 오프라인 소비패턴의 변화: 2020년 신용카드 데이터 분석.” 「연세경영연구」 제58권 제3호, pp. 83-102.
- 한국경영자총협회. 2021. 「개인 신용카드 데이터로 분석한 품목별 소비 현황과 시사점」.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환경연구원. 2021a.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2021 국민환경의식조사」. 한국환경연구원.
- 한국환경연구원. 2021b. 「팬데믹 관련 환경인자 및 현황 분석 기반 환경 정책방향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